

북

자본주의, 욕망에 흔들리는 삶 꼬집기

상처받지 않을 권리

강신주 지음

작가 이상(1910~1937)의 소설 '날개'에는 돈이 자주 등장한다. 소설 속 주인공은 '돈 오원을 아내 손에 쥐여주고 넘어졌을 때에 느낄 수 있었던 괴감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며 돈이 가진 힘과 욕망을 꼬집었다.

동서 비교철학을 연구해 온 철학자 강신주(42) 박사는 신작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통해 이상의 작품 속 인물들의 비뚤어진 욕망을 꼬집는다.

책은 이상, 유하, 찰스 피에르 보들레르, 계오르그 짐멜, 발터 벤야민, 피에르 부르디외, 미셸 투르니에, 장 보드리아르 등 동서양 문인과 학자들의 입을 빌려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한다.

자본주의를 향한 저자의 비판의식은 이들 문인의 작품과 철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알기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이상과 짐멜은 화폐와 대도시가 탄생하면서 인간의 욕망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은 유행과 매출, 도박 등 자본주의적 삶의 조각들을, 투르니에와 부르디외는 자본주의가 개인된 인간의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또 영화감독과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하는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가면서 상처받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은 천재시인이기에 앞서 '모던보이'였다.

소설 '날개'의 주인공은 자신의 골방이 아니라 아내의 방에서 자라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상 자신도 늘 권력을 느끼고 시골에서는



'상처받지 않을 권리'는 수많은 욕망에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사진은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소비 문화현장인 백화점 할인행사장 모습.

〈광주일보 자료〉

경성을, 경성에서는 동경(도쿄)을 꿈꾸는 도시인 이었다.

돈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유명한 학자 짐멜은 인간과 사물 사이에 화폐가 끼어들면서 인간과 사물, 인간과 타인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지적한다. 도시가 생겨나면서 개인주의도 탄생한다.

화폐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자신이 아닌 타자의 욕망이다. 사람은 돈을 가지면 단순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돈을 원한다는 '가치'까지 차지하면서 괴리를 느낀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 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라는 정신분석 학자 리카강의 말을 빌려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는 유하와 보드리아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유하는 1980년대 'CF 킹'이었던 배우 심혜진의 모습에 길들여져 심혜진이 주연한 영화를 보면서 심혜진이 광고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

을 서로 표현한다.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도구로서 사물(물건)이 아니라 사물 속에 깃든 관념적 가치를 사들이는 것이라고 본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됐다고 해서 또 사는 것은 이런 '기호가치' 때문이다.

제목인 '상처받지 않을 권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뜻하는 샘이다. 하지만 이 책은 거대한 자본 앞에서 상처받는 현대인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했지만 명쾌한 해결책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저자는 물질주의의 자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자본주의가 인간성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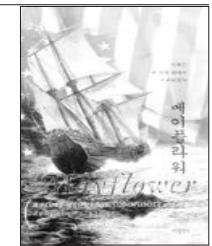
한편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 우수 저작 및 출판 지원 사업' 교양부문 선정작이기도 하다.

〈프로네시스·1만8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메이플라워

너새니얼 필브리 지음·황정하 옮김



왜 미국은 필그림(Pilgrim·순교자)을 선조로 생각하는가?

세계적인 논픽션작가 너새니얼 필브리이 쓴 '메이플라워'는 미국을 탄생 시킨 중요한 사건, 메이플라워호의 항해와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최초의 순례자들이 이룩한 신화에 가려진 것은 무엇인지를 섭세하고 생생한 필치로 추적한다.

1620년에 필그림이 어떻게 종교적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 왔는지,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 체결 후 어떻게 플리머스 록에 상륙하고 그곳의 인디언과 친구가 되었는지, 그

미국 전국사에 감춰진 '불온한 진실'

들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원주민 추장 마사소이트가 어떻게 도왔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책의 빙을 필그림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빙을 '필립 왕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에 대해 기술하는데 중점을 둔다. 필그림과 그들의 후손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50년 넘게 유지한 평화 관계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전쟁으로 산산이 부서졌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건국사는 훨씬 새롭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책은 미국의 건국 신화로 인식돼온 '필그림에 관한 신화'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일종의 역사적 환상이 리는 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저자는 서문에서 "정착민의 압승으로 끝이 난 필

립 왕 전쟁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 전쟁 당시 원주민의 75퍼센트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비율로 보면 남북 전쟁 당시 사망자의 두 배가 넘고, 미국 독립전쟁과 비교하면 거의 일곱 배에 달한다. 결국 한 민족의 자예에 대한 열망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 어 버린 '셈'이라면서 신大陆 발견과 적응, 공동체 형성과 전쟁이라는 패턴은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로 진출할 때마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힌다.

책은 또 17세기 필그림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실생활, 그리고 수많은 원주민 부족에 대한 뛰어난 세부 묘사와 아주 작은 대화 하나하나까지 심혈을 기울여 역사의 한 장면을 새롭고 생동하는 이미지로 되살려 놓았다.

〈바다출판사·2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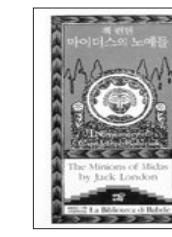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들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원주민 추장 마사소이트가 어떻게 도왔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책의 빙을 필그림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빙을 '필립 왕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에 대해 기술하는데 중점을 둔다. 필그림과 그들의 후손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50년 넘게 유지한 평화 관계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전쟁으로 산산이 부서졌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건국사는 훨씬 새롭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책은 미국의 건국 신화로 인식돼온 '필그림에 관한 신화'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일종의 역사적 환상이 리는 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저자는 서문에서 "정착민의 압승으로 끝이 난 필



▲마이더스의 노예들=미국 작가 잭 런던의 단편 다섯 편을 묶은 소설집. 아르헨티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기획한 '세계문학전집'의 첫 권으로 둘째 권인 갈버트 키스 체스터턴 소설집 '아폴로의 눈'과 함께 나왔다. 표제작 '마이더스의 노예들'은 폭력적인 무정부주의자들로 이루어진 비밀 집단의 섬뜩한 면모를 그렸다.

〈비벌리도서관·9천원〉

▲구두를 신고 잠이 들었다=2005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강성은 시인의 첫 시집. '세체라제네' 등 50여 편의 시를 3부로 나눠 실었다. 동화적 상상력과 상징을 바탕으로 마술적이면서 슬픈 이야기의 시들로 가득 차있다. 아동 같은 동화와 환상의 세계를 강 시인만의 세련되고 유려한 리듬, 잘 짜인 어법으로 표현했다.

〈창비·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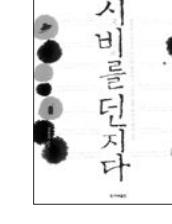
▲심리학이 접은 범인=과학경찰연구소 최고 두뇌들이 블러주는 현장수사관과 일반인을 위한 수사심리학 강의서다.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범죄동향부부장을 지낸 와타나베 쇼이치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와 거짓말을 하는지, 피의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인질범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오픈하우스·1만8천원〉



▲장미나무 식기장=늙은 기생들의 삶을 다룬 연작소설집 '신기생뎐'의 작가 이현수씨의 두 번째 소설집. 호주제, 부동산 투기, 거리기 아빠 등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인물들의 삶 속에 힘 있는 문장으로 담아냈다. 우리 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부터 태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장미나무 식기장' 등 7권의 작품이 실렸다.

〈문화동네·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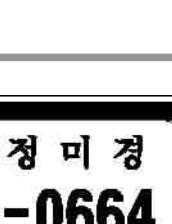
▲서비스를 던지다=부산대 강명관 교수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학문적 관심대상인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맛깔스럽게 풀어냈다. 노비와 비정규직, 21세기 '열녀', 지방이라는 실지민, 향촌 내쫓는 학부모와 강사 내모는 대학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특히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교육 등에 저자 나름의 자대로 시사비(是是非非)를 짚고 있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세계적인 영적 승승 달라이 라마의 삶과 죽음, 사랑과 세상에 대한 진실 어린 성찰을 담았다.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고요하게 머무르기 위한 명상법과 마음을 길들이기 위한 수련법을 비롯하여 현대 물질문명, 세계화와 자본주의, 종교 간의 갈등, 과학과 종교의 대립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생각들을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구라팡=예술과 문예창작과 아이들을 등장시킨 이명랑씨의 청소년소설. 작가가 청소년 시절에 '복용'한 문학이라는 암을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권하기 위해 쓴 소설이다. 교과서 위주의 입시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난, 그럼에도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처해 있는 예민한 어린 '문청'들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명랑하게 그려냈다.

〈시공사·9천원〉

영국 구석구석 기행서

빌브라이슨 영국 산책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여행작가’라는 별명을 가진 빌브라이슨이 이번에는 영국으로 떠났다.

‘빌브라이슨은 빌브라이슨’은 미국 태생이지만 ‘런던 타임스’ 기자 등을 지내며 20년 가까이 영국에 머물렀던 빌브라이슨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영국 구석구석을 둘러본 기행서다.

저자는 런던, 원자, 솔즈베리, 옥스퍼드, 캠브리지, 맨체스터, 리버풀 등 각 도시의 모습 뿐 아니라 아나 영국인들의 생활방식, 전통 등을 특유의 유머스러운 문체로 묘사했다.

〈21세기북스·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

제작자: 김경희

제작: 김경희